

바로크 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金 珠 愛

전주전문대학 가정과 부교수

A Study on the Men's Underclothes of Baroque Ages

Ju-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Chin-Ju Junior College

目 次

Abstract	IV. 속옷의 특징과 변천
I. 서 론	V. 결 론
II. 사회·문화적 배경	참고문헌
III. 속옷의 개요	

Abstract

During the Baroque Ages, the underclothes of both sexes developed a new significance. They ceased altogether to be merely utilitarian in function, and were exploited, to a striking degree, to indicate class distinction and sex attraction.

Up to this period, as we have seen, the underclothes of men and women had very much the same significance, but from now on there is a division. The male garments are designed mainly to express social rank, the female mainly to attract. The man's shirt is an integral part of the visible costume of the fine gentleman.

After 1660, The fashion portrayed by the men, exhibiting the shirt extruding between the bottom of the waistcoat and the top of the breeches is still more remarkable and significant. The period is important in that it was the last time that the male attempted to give his under-clothing an erotic suggestion.

It was their experience that silk and linen garments next to the skin were less liable than wool to harbour lice. Until the era of physical cleanliness opened a century later, woollen undergarments were rarely worn. The nineteenth century accepted cleanliness as a sign of class distinction.

I. 서론

인간생활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거기에는 시대와 함께 변천되어온 속옷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으며 속옷은 생활에 따라 변화해 왔으므로¹⁾ 시대변천에 따라 속옷의 특징 및 그 변천에 대하여 고찰하는 것은 문화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속옷은 피부에 접하여 있고 겉옷에 의해 완전히 혹은 거의 가리워지는 모든 품목을 말한다. 따라서 속옷은 가능한한 피부와 같은 기능을 겸비해야 하며, 방한, 방수 및 위생 등의 목적을 가지면서 쾌적한 착용감도 필요하다. 속옷은 이러한 실용적인 목적 외에 장식적이고 심리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되어 왔다.

또한 의복의 완전한 실루엣은 속옷에 의해 많이 좌우되는 관계로 겉옷 못자 않게 속옷의 역할은 복식 그 자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러한 속옷의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겉옷의 중요성도 이해할 수 없으며, 완벽한 의상이란 겉옷과 속옷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²⁾. 이와 같이 속옷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속옷에 관한 연구는 겉옷에 비하여 미미한 실정이다.

속옷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주로 여성의 속옷에 관하여 언급되고 있으나^{3,4,5)}, 남성의 속옷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남성의 복에 관한 연구로는 겉옷을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다. 필자는 고대를 중심으로한 시대변천에 따른 속옷에 관한 연구⁶⁾ 및 중세를 중심으로한 남성 속옷에 관한 연구⁷⁾를 보고한 바 있다. 고대에는 속옷과 겉옷이 같은 성격을 가졌고, 중세에는 속옷이 죄의식과 연관되었으며 노출되지 않아

그다지 중요하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세에서 근세로의 변화와 함께 속옷은 비약적으로 진보를 하게 되었다⁸⁾. 근세 초기의 르네상스 시대를 통하여 속옷은 노출되면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동일하였으나 바로크 시대에 들어 남녀의 속옷은 기능이 분리되는 중요한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이와 같이 속옷의 기능성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지는 것을 고찰해 보는 것은 기능성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고에서는 바로크 시대의 남성 속옷에 대하여 그 종류 및 특징을 파악하여 남성의복에 관한 이해와 고찰을 돕고자 한다.

II. 사회·문화적 배경

17C는 근대국가만이 아니라 근대과학과 근대철학이 형성된 시기였으며, 그 밑바닥에는 인간의 새로운 힘의 자각, 즉 스스로의 사회를 형성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다는 힘의 자각이 있었다⁹⁾.

17C 바로크(Baroque) 시대에 들어와 유럽의 정세는 크게 변화하였다. 초기에 독일지방의 종교분쟁으로 시작된 30년 전쟁(1618~1648년)은 국제전쟁으로 확대되었으며 네덜란드가 경제적 중심국으로 대두되는 유럽 사회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네덜란드의 복식이 유럽패션에 영향을 미쳐 자유로운 시민정신과 프로테스탄트의 생활신조가 복장에도 적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유럽 각국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주력하여, 외교나 원거리 무역 등, 활동의 범위가 매우 넓어져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복장이 요구되었다.

17C는 정치적으로 군왕주도의 절대주의 시대이며, 사상적으로는 기독교 사상의 지배에서 벗

1)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 1.

2) Cunningham,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 11

3)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학위논문, 1985.

4)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大 석사학위논문, 1985.

5)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大 석사학위논문, 1986.

6)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제5권 제4호, 1997, pp. 12-31.

7)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제6권 제1호, 1998, pp. 136-148.

8) 日本ボディファッ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 113.

9) 안양홍, 西洋史概論, 三英社, 1997, p. 373.

어난 계몽사상 시대이다. 바로크 예술은 절대주의의 긍정과 반종교개혁의 정신을 모체로 하여 개화한 예술로서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전 유럽에 퍼졌다.

17C 중엽 이후로 유럽의 정치적 권력의 중심이 프랑스 궁정에서 확립되고 프랑스는 영국과 함께 세계 상공업무대에서 다투게 되었다. 프랑스는 앙리(Henri) 4세가 종교개혁 이후 나라의 재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사치금지령을 내렸다. 루이(Louis) 14세 통치기는 봉건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로 넘어가는 왕정의 극성기로 유럽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직물산업을 장려하였으며 의복 외에 모든 문화에 대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루이(Louis)왕 통치 초기에는 스페인을 제외한 전 유럽이 프랑스의 모드(mode)와 문화를 따랐다. 그리고 의복에 금, 은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리본(ribbon), 루프(loop)와 같은 장식이 유행하게 되었다. 단추는 기능적인 역할 외에 장식적인 역할로도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17C에는 약혼예물이나 결혼예물로써 속옷이나 잠옷을 보내는 일이 유행하였다¹⁰⁾.

III. 속옷의 개요

바로크 시대를 통하여 남녀의 속옷은 새로운 의미로 발전하게 되었다. 즉 속옷은 단순한 실용적 기능 대신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의 기능을 나타내게 되었다. 여성 속옷과 마찬가지로 남성 속옷도 중요성을 가졌으며 이 시기부터는 남녀 속옷의 분리가 이루어졌다. 즉 여성 속옷은 매력을 끌기 위한 반면에 남성 속옷은 주로 사회적 계층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예로써 남성 셔츠의 노출되는 부분은 상류층의 표시였다. 1660년대 전후로 셔츠를 아름답게 장식하며 웨이스트코트 끝과 브리치즈의 상단부 사이에서 빠져 나온 셔츠의 노출은 뚜렷하고 의미있는 남성패션으로써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다.

외국 무대에서 남성이 셔츠와 드로워즈만을 착용한 놀라운 장면은 여성관객들에게 매우 매력적

으로 받아들여져서¹¹⁾ 이 시기에 남성이 성적 표현을 속옷에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의복은 상류층일지라도 불결하여 해충이 있었다. 견과 린넨으로 된 의복이 모(毛)에 비해 해충이 적게 번식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모로 된 속옷은 좀처럼 착용되지 않았다. 19C에 계층구별의 표시로서 청결함이 받아들여졌으나 20C에 들어 신분 표시는 많이 약화된 반면에 성적 매력은 강조되었다. 1678년의 법령에서는 피부와 밀착되게 모를 착용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강조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1814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당시 교구기록부에서 시신은 모로 매장하는 풍습을 밝히고 있다.

속옷의 소재로써 바로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지껏 면은 린넨보다 사회적으로 열등하게 인식되어졌으나 1660년 이후로 보편화되었다. 17C에 이르기까지 속옷의 조이는 방법은 끈과 리본이었으나 17C에 단추로 대체되었다.

일반인은 결혼예물로서 반지를 교환하였으나 상류층의 남성은 여성에게 양말, 장갑, 금·은 장신구, 리본, 레이스, 속옷 및 하인의 속옷까지 포함하여 보냈으며 여성은 남성에게(잠옷을 포함한) 속옷 및 하인의 셔츠를 답례로 보냈다¹²⁾. 상류층의 결혼 예물에 이용된 속옷은 보석을 많이 사용하여 상당히 고가였으므로 속옷이나 겹옷에 사용된 보석으로써 신분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왕녀조차도 현 속옷을 소중히 여길 정도였으므로 일반인의 속옷 선물은 드물었다.

IV. 속옷의 특징과 변천

1. 데이셔츠(Day Shirt)

바로크 시대의 초기에 셔츠는 두블렛의 슬래쉬와 단추를 채우지 않은 소매를 통하여 노출되었다. 1640년경 단추를 채우지 않고 짧아진 두블렛과 허리선을 낮춘 브리치즈 위로 셔츠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어 셔츠가 현저하게 노출되었다(그림 1). 또한 1690년대부터 단추를 채우지 않은 베스트를 통해 셔츠의 많은 부분이 노출되었다. 계

10) 青木英夫, 앞의 책, 1991, p. 41

11)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Dover, 1992, p. 54.

12)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 42.



<그림 1> Shirt, 1660,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plate 6.



<그림 2> Shirt, 1612-5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57.

절에 관계없이 셔츠와 웨이스트 코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는 것이 유행하였고 셔츠는 노출부분이 많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품목으로 되었다¹³⁾.

셔츠의 앞은 짧은 중앙트임을 가진 좁은 목밴드로 모아졌고, 이 목트임은 레이스나 린넨 프릴로써 가장자리를 이루며 끈이나 단추로 마감되었다. 목밴드가 스탠드-업 턴 다운(stand-up turned down) 칼라로 변화된 경우에도 끈이나 두개의 단추로 조였다(그림 2).

셔츠의 몸판은 상당히 풍성하였고, 길고 풍성한 비숍소매¹⁴⁾는 손목이나 팔꿈치에서 리본으로 묶여졌으며 이것은 17C 말기까지 유지되었다. 이 예는 찰스 2세의 장례식 초상에서 보여지는 43인치 길이의 셔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 셔츠는 소매의 팔꿈치와 전완에서 풍성한 퍼프로 모여지고 손목밴드에는 레이스 러플이 부착되며 네개의 단추구멍으로 구성되었다. 이 셔츠 앞트임은 레이스 끈으로 장식되고 좁은 목밴드에는 왼쪽으로 두개의 단추구멍이 있었다.

이 시기 초기에 목부위는 고운 린넨이나 레이



<그림 3> Shirt & cravat, 169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59.

13)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1965, p. 335.

14) Marybelles S, Bigeiow,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1979, p. 175.

스로 만든 폴링밴드에 의해 가리워졌고, 이 폴링밴드는 어깨를 덮을 정도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1640년경 이 밴드는 작아져서 앞에서 늘어뜨리는 크라밧으로 대체되었다. 17C 말에 크라밧은 더욱 좁고 길어져서 허리까지 왔으며(그림 3) 보통 레이스밴드, 크라밧, 커프스 등은 분리될 수 있었다¹⁵⁾. 1690년부터 이용된 스테인커크는 끝부분이 로프처럼 함께 꼬여졌다(그림 4).

또한 바로크시기에는 소매끝의 변화가 생겼다. 17C 중반경에 반다익의 가장자리와 더불어 레이스나 론(lawn)으로 된 뒤집혀진 커프스는 림프와 함께 착용되었다. 1660년대에 론이나 레이스를 소재로 한 손목 리플은 손을 덮을 정도로 연장되어 상류층임을 표현하였다.

상류층과는 대조적으로 청교도인은 자켓 아래 의 셔츠가 거의 감추어지고 린넨으로 만들어진



<그림 4> Cravat worn Steinkirk fashion, 1693, *2000years of Fashion*, p. 262.

작고 뾰뚱한 칼라와 커프스를 착용하였다¹⁶⁾.

셔츠 재료로는 시장에서 구입된¹⁷⁾ 고운 폴랜드(Holland), 린넨, 레이스가 이용되며, 하류층에서는 두껍고 거친 폴랜드 외에도 조악한 린넨인 락커램(lockeram)¹⁸⁾과 도올라스(dowlas)¹⁹⁾가 이용되었다.

2. 하프셔츠(Half shirt)

1598년경에 스코틀랜드에서 유래된 하프셔츠는 험길이인 짧은 언더셔츠이며 겨울에는 플란넬(flannel), 여름에는 린넨을 소재로 한 캐미솔과 상용하였다. 기후가 무더울 때에는 하프 셔츠를 착용하였으나 추워지면 보온을 위해 하프 셔츠 대신에 웨이스트 코트를 착용하였다. 이 하프 셔츠는 유럽 전역에서 유행하였다²⁰⁾.

또한 장식적인 가슴을 가진 짧은 하프 셔츠는 충분한 길이의 단순한 셔츠 위에 착용되거나, 속에 착용한 것의 오염을 막기 위해 이용되기도 하였다. 하프 셔츠는 조악한 재료로 된 샴즈(shames)로써 18세기에도 계속 이용되었다²¹⁾.

3. 드로워즈(Drawers)

드로워즈는 두가지 형태가 있었으며, 하나는 풍성하며 각이 지게 재단된 짧은 형으로써 웨스트민스트 아비에 있는 찰스 2세 초상에서 그 예가 나타나 있다. 이것은 앞에서 리본으로 묶였으며, 뒤에 작은 틈이 있고 뒤에서 끈으로 당겨진 13인치인 짧은 건트렁크(그림 5)이다. 다른 하나는 다리 위로 미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등 아래를 지나는 스트럼(stirrup) 끈을 가진 긴 형태로 되었다.

4. 나이트클로즈(Nightclothes)

나이트클로즈로는 나이트셔츠와 나이트 캡이 이용되었다. 잠자리에서 남녀 모두 나이트 셔츠

15) Cumming, Valerie,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 41.

16) Yarwood, Dorcen, *English Costume*, B. T. Batsford, 1954, p. 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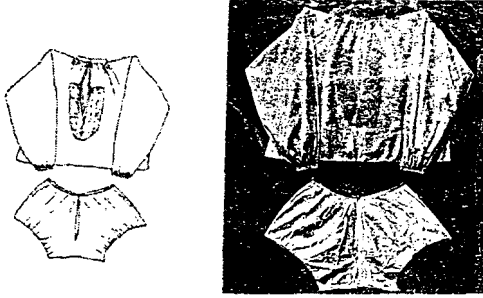
17) Carter, Alison, *Underwear*, B. T. Batsford Ltd, 1992, p. 23.

18)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 262, 15C에서 17C에 걸쳐 하류층의 셔츠, 스목 등에 이용된 조악한 린넨.

19)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53, 16C에서 19C에 걸쳐 하류층의 셔츠, 스목 등에 이용된 조악한 린넨.

20)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Dover, 1992, p. 59.

21)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101.



<그림 5> Shirt and Drawers, 1686,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 40.



<그림 6> Nightclothes, 1646,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 61.

를 착용하였으며(그림 6) 실내복으로 이용할 때에는 나이트 셔츠 위에 다른 의복을 착용하였다²²⁾.

신사의 나이트셔츠는 테이셔츠처럼 목과 소매



<그림 7> Nightclothes, 1669, *Medicine*, p. 198.

아래부분을 레이스로 장식하고 손목에도 리플을 이용하였다. 나이트 셔츠는 잠자리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테이셔츠보다 다소 깊은 편평한 칼라와 풍성한 소매로 구성되었다(그림 7, 8). 경우에 따라서는 장식이 없는 칼라와 손목밴드로서 구성된 단순한 형태도 착용되었다(그림 7). 색상으로는 흰색 외에 검은 색도 사용되었으며 보통 나이트 캡은 나이트 셔츠와 동일한 색상을 이용하였다. 흰 린넨 나이트 셔츠에 금사, 은사, 붉고 푸른 색사로 자수가 놓여지기도 하였다(그림 8)²³⁾. 셔츠 소재는 보통 린넨이었으나 타프타(taffety)²⁴⁾도 사용하였다.

초기부터 잠자리에서 이용된 나이트 캡(그림

22) Cumming, Valerie, 廣瀬尚美 譯, 앞의 책, p. 41.

23)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1996, p. 19

24)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 276, 원래는 평직의 광택있는 견섬유이며 후에 변화있는 광택을 가진 가는 견 섬유로 됨.

25) Nunn, Joan, 앞의 책, p. 62.



<그림 8> Nightclothes, 1635, *Underwear*, p. 19.



<그림 9> Embroidered nightcap, 1600,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p. 66.

6, 9)은 단순한 형태이며 세탁이 가능하였다²⁶⁾. 나이트 캡은 차양이 밀착되게 뒤집어졌고 둥근 상부를 이루었다(그림 9). 상부 반은 반구형의 꼭대기를 이루는 4개의 원뿔부분으로 재단되고 이것은 함께 바느질되어 하나로 구성되었다. 하부

가장자리는 밀착된 차양을 이루기 위하여 뒤집어졌다²⁷⁾. 나이트 캡의 소재는 보통 린넨이 이용되며 그외에 벨벳, 견, 브로케이드, 고운 나사도 이용되었다. 나이트 캡은 자수로써 전체를 장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 장식없이 단순하거나 누벼지기도 하였다. 또 레이스로 되거나 검은 견사로써 V마크가 있거나 뽀족한 형태도 있었다.

5.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웨이스트코트는 보온이나 과시를 위하여 착용된 속 두블렛이었다. 1660년대까지 웨이스트코트는 속 두블렛형태이거나 이와 비슷한 형태로써 보온을 위해 착용되었다. 또한 단독으로 착용함으로써 방서 효과를 가졌다²⁸⁾.

1660년 후기 이후로 웨이스트코트는 코트의 형태를 따랐으나 코트에 비해 웨이스트코트 소매는 길고 밀착되며 코트의 커프스 위로 웨이스트코트 소매 커프스를 뒤집었다. 웨이스트코트는 코트없이 착용되기도 하였으며(그림 4) 뒤 부분은 코트에 의해 가리워졌으므로 앞부분보다 값싸고 품질이 낮은 재료를 사용하였다²⁹⁾. 1680년대에는 이와같이 값싼 웨이스트코트를 퀴트(cheats)라 하였다³⁰⁾.

1670년 이후 프랑스에서는 베스트라는 새로운 명칭을 이용하였으나 영국에서는 웨이스트코트 용어를 계속 이용하였다. 이것은 가슴이 약간 타이트하고 헐아래로 양옆이 트이고 뒤 트임도가 졌다. 앞 아래는 전부 단추로 되어지며 이것은 남성의 실내복으로 이용되었다(그림 10)³¹⁾. 1670년 경부터 유행된 베스트는 코트와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넓은 플랩을 가진 세로 포켓이 있었다³¹⁾. 이것은 칼라가 없고 허리가 적당히 맞고 무릎길이며 허리에서 새시나 버클된 거들으로써 마감되었다. 일상복으로 코트없이 별도로 소매가 붙은 웨이스트코트가 단독으로 착용된 후로 커프스는 사라지고 코트보다 웨이스트코트는 단추가 많았

26)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Faber & Faber, 1970, p.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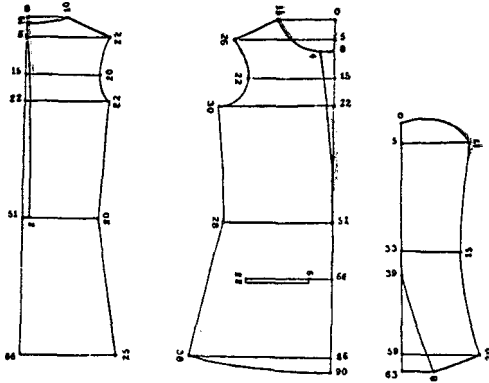
27)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Faber & Faber, 1970, p. 133.

28) Sichel Marion, *Jacoben, Stuart and Restoration*, B. T. Batsford Ltd, 1977, p.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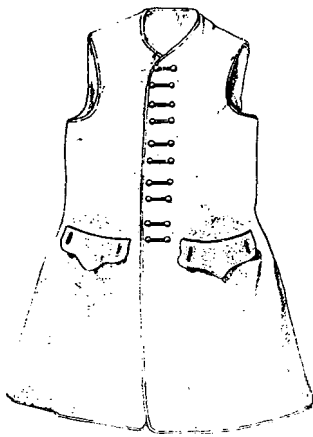
29)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위의 책, Faber & Faber, 1970, p. 139.

30) Ko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Dover, 1963, p. 310.

31) Nunn, Joan, 앞의 책, p. 58.



<그림 10> Vest, about 1700, *A History of costume*, p. 310.



<그림 11> Leather vest, 1680, *Jacoben, Stuart and Restoration*, p. 42.

다³²⁾. 1700년대 이전까지는 보통 소매가 있었으나 후기에는 소매가 없어졌다³³⁾.

색상은 보통 핑크색이나 드물게는 검은색도 이

용되었다³⁴⁾. 소재는 새틴³⁵⁾ 외에 가죽도 이용되었고, 가죽 베스트에는 청동단추가 부착되었다(그림 11)³⁶⁾. 1649년경에 착용된 찰스 1세의 건 웨이스트코트에서는 최초의 단추 형태인 high-top의 예를 볼 수 있으며³⁷⁾, 이것은 린넨으로 덮힌 디스크모양의 양팔로 만들었다.

V. 결 론

바로크 시대에 이용된 남성 속옷의 특징과 변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속옷은 단순한 실용적 기능 대신 신분 표시와 성적 매력을 나타내게 되었다. 여성 속옷과 마찬가지로 남성 속옷도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이 시기부터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었다. 즉 여성 속옷은 매력을 끌기 위한 반면에 남성 속옷은 주로 신분을 표시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었다. 또한 무대에서 단지 셔츠와 드로워즈 차림의 남성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여겨졌으므로 속옷이 신분 표시뿐만 아니라 성적 표현도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1640년경의 짧아진 두블렛과 1660년대 이후로 웨이스트코트 끝과 브리치즈의 상단부 사이에서 빠져나온 셔츠의 노출은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었고 1660년대의 긴 손목 러플도 상류층의 표시였다. 셔츠는 노출부분이 많아지면서 더욱 중요한 의복으로 발전되었다.
3. 바로크시대의 속옷 항목에 하프셔츠가 추가되어 더울 때 하프 셔츠를 착용하였으며 추운 경우에 보온을 위해 하프 셔츠 대신 웨이스트 코트를 착용하였다. 드로워즈는 풍성하고 각이 진 짧은 트렁크 형태와 긴 형태가 있었다. 잠자리에서는 깊은 목트임과 편평한 칼라로 구성된 나이트셔츠와 나이트 캡

32) Cumming, Valerie, 앞의 책, p. 40.

33) Phyllis G. Tortora, 1995,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 Child Pub., p. 191.

34) Waugh, Nora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1977, p. 47.

35)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위의 책, Faber & Faber, 1970, p. 24.

36) Sichel Marion, 위의 책, p. 42.

37)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앞의 책, Faber and Faber, 1981, p. 38-43.

을 착용하였다.

4. 견과 린넨으로 된 의복이 모에 비해 해충이 덜 번식된다는 것이 인식되어 모직으로 된 속옷은 좀처럼 착용되지 않았다. 1660년대 이전까지는 면이 사회적으로 린넨보다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1660년대 이후로 보편화되어 바로크시대에 면이 보편화됨을 알 수 있다. 바로크시대의 드로워즈는 계절에 따라 소재를 달리하여 소모사는 겨울용으로 시원한 홀랜드는 여름용으로 이용하였다. 셔츠는 신분에 따라 소재가 다양하여 상류층에서는 고운 홀랜드를 이용한 반면에 하류층에서는 두꺼운 홀랜드, 조약한 린넨인 락커렘, 도울라스를 착용하였다. 이전까지 속옷의 조임에는 끈과 리본이 이용되었으나 이 시기에는 단추도 이용되었다.

근세에 들어 속옷이 노출되면서 속옷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고대부터 르네상스시대까지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동일하였으나 바로크시대에는 남녀 속옷의 기능이 분리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여성은 성적 매력을 위해서 속옷을 착용한 반면에 남성은 신분 표시를 위하여 속옷을 착용하였다. 특히 바로크시대에는 셔츠 노출이 두드러져 셔츠가 중요한 항목으로 발전되었으며 셔츠의 다양한 소재가 신분표시로 이용되었다.

참고문헌

1. 金珠愛, 女子 속옷의 變遷에 관한 研究, 慶尙大學校 석사논문, 1985.
2. 민양홍, 西洋史概論, 三英社, 1997, pp. 373-181
3. 吳京淑, Undergarment의 變遷史的 考察, 誠信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85.
4. 鄭福姬, 西洋服 內衣의 變遷에 관한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석사논문, 1986.
5. 申尙玉, 西洋服飾社, 修學社, 1995, pp. 182-197.
6.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5(4), 1997, pp. 12-31.
7.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1), 1998, pp. 136-148.
8. 日本ボテイフア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p. 114-115.
9. 青木英夫, 下着의 流行史, 雄山閣, 1991, pp. 1-46.
10. Carter, Alison, *Underwear*, B.T. Batsford Ltd, pp. 20-23, 1992.
11.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pp. 38-43, 1981.
12.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p. 53-61, 1992.
13.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pp. 101-262, 1976.
14. Cunnington, C. Willett and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aber & Faber, pp. 24-148, 1970.
15. Cumming, Valerie, 廣瀬尙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pp. 38-41, 1991.
16. Francois Boucher,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pp. 251-281, 1987.
17. G. Carmichael Ann and M. Ratzan Richard, *Medicine, Beaux Arts*, p. 198.
18. Köhler Carl, *A History of Costume*, Dover, pp. 286-331, 1963.
19. Laver, James, *Costume and Fashion*, Thames and Hudson, pp. 103-124, 1986.
20. Marybelles S, Bigeiow, *Fashion in History*, Burgess publishing, pp. 174-175, 1979.
21. Nunn, Joan,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pp. 52-74, 1990.
22. Payne, Blanche, *History of Costume*, Harper and Row, pp. 331-353, 1965.
23. Phyllis G. Torrtora, Keith Eubank, *Survey of Historic Costume*, Fair child Pub, p. 191, 1995.
24. Ribeiro Aileen and Cumming, *The Visual History of Costume*, B.T. Batsford, pp. 112-127, 1989.

25. Ruby, Jennifer, *Underwear*, Batsford, pp. 18-19, 1996.
26. Sichel Marion, *Jacoben, Stuart and Restoration*, B.T. Batsford, pp. 35-50, 1977.
27. Tarrant, Naomi, *The Development of Costume*, Routledge, pp. 93-95, 1996.
28. Waugh, Norah,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pp. 34-80, 1977.
29. Yarwood, Doreen, *English Costume*, B.T. Batsford, pp. 146-168, 1954.